

# 시민종교란 무엇인가?

## 2010 만해축전 심포지엄서 주제 논의 해석 달라 혼동 초래

2010 만해축전 심포지엄이 8월 17일 만해 NGO센터에서 진행됐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과 시민사회간 소통가능성과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한 참가자들은 각 종단의 권위주의적인 모습, 대항화, 정교유착 등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심포지엄은 본 주제인 '한국사회에서 시민종교의 현상탐구'와 부제인 '종교와 시민사회의 소통가능성과 방법론'이라는 2개의 주제를 선정해 불분명한 포럼이 진행됐다. 발표자들도 '시민종교'에 대한 개념을 달리 하면서 주제발표의 내용에 혼동을 더했다.

윤남진 NGO리서처 소장의 '종교와 시민사회의 그 결합관계의 진화'는 심포지엄의 총화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애매모호한 개념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사회학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대중들의 동의율을 얻기 힘든 모습도 보였다.

박문수 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은 논평에서 "시민종교라는 표현이 미국의 건국정신 또는 자본주의적 가치로 일치하고 있는 미국적 현상을 개념화 할 것으로 명확하게 제정의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혼



2010 만해축전 심포지엄이 8월 17일 만해 NGO 센터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시민종교'와 '시민사회와 종교' 두가지 주제로 진행돼 논의의 초점을 잃었다.

동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종교보다는 시민사회적인 종교라는 표현이 더 명료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소장의 정보통신문명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대안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박문수 부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자 민주주의, 공론장 확대, 브로드 캐스트

에서 포인트 캐스트로 전달방식이 세분화 되고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감시와 통제가 용이해진 측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은 "시민종교는 시민적 성스러움을 대신 할 수 있지만 한국 개신교의 반공주의도 시민종교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적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

다. 박희택 원장은 "올곧은 시민종교의 구현은 제도종교로서 시민종교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경로를 밟고, 시민종교로서 긍정적 의미를 갖는 경로를 밟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희택 원장과 윤남진 소장은 서로 시민종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비판의 논점도 맞지 않았다. 이상언 기자

### 8재계수계대법회 포교사 대상 실시

포교사단의 연례행사인 8재계 수계실천 대법회가 8월 28~29일 월정사에서 진행됐다. 팔재계수계실천대법회는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이 주관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포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행사는 월정사 주지 정녕 스님의 포교사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팔재계수계식이 진행된다. 증명법사는 현해 스님이, 계사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감사는 월정사 주지 정녕 스님, 교수는 울주인 원행 스님이 맡는다.

팔재계수의 8가지 계는 '살생을 하지 말라(不殺生), 훔치지 말라(不偷盜), 사음하지 말라(不婬),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 술을 지나치게 먹지 말라(不飲酒), 화관을 쓰고 향을 지나거나 몸에 바르지 말라(不着香華 不香塗身),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서 구경하거나 듣지 말라(不自歌舞倡伎不往觀聽), 높고 넓고 크게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不作高廣大床),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이다. 이상언 기자

###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

#### 선재 스님, 전통사찰 음식만들기 특강

경상도 음식은 깔끔해서 사람들이 화끈하고, 충청도는 간이 심심해서 사람들이 느긋한 편입니다. 전라도는 지리조건이 좋아 먹거리가 많으니 예술가들이 많지요. 음식이 마음을 만들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웰빙 바람이 불면서 채식·자연식 등이 인기를 끈 지 오래이다.

사찰음식전문가 선재 스님은 8월 14~15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통사찰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명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채식·자연식은 생명유지에 건강을 더한 것이다. 선식(禪食)은 생명 유지와 건강에 지혜를 더한 음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선식은 맑은 영혼을 만들어준다"면서 "<사분율>에는 '모든 음식이 약'이라 했을만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재 스님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유전자조작 곡물·채소 섭취와 항생제로 키워진 고기, 보존료와 농약으로 범벅된 바나나, 오렌지 등 우리 먹거리가 오염되고 있다"며 "오염된 음식을



8월 14일~15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전통사찰음식만들기'에서 선재 스님이 상추대금김치를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찰음식 만들기 실기에 앞서 스님은 '음식이 사람의 성품을 만든다'는 주제로 특강했다.

스님은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음식이 성품을 만든다'고 말했다"며 "음식의 기는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데 동적인 식품은 밖으로 표출되는 기운이 생기게 하고, 정적인 식품은 내면을 충실케 하고 정질이 맑다"고 말했다.

동적인 식품에는 육류, 어패류, 오신채, 술, 인스턴트·가공 식품이 속한다. 정적인 식품은 주로 채소류를 말한다.

"콩나물은 근육 등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크게 하고 해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험 볼 때 엿을 먹는 것은 뇌가 활동하는데 당분과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선재 스님은 "일반 음식은 생

각적으로 섭취하면 아이를 비롯한 사람의 성품이 망쳐지고 몸을 병들게 한다. 결국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켜서 지구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대 사회의 고질병인 성인병과 우울병은 오염된 음식 섭취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선재 스님은 "지혜로운 음식 섭취란 제재·제철에 난 식재료를 이용해 정성을 들여 요리하고 알맞게 먹는 것"이라며 "아침은 죽과 같이 간소하면서도 맑게 섭취하고 점심은 푸짐하지만 과식하지 말 것이며, 저녁은 간단히 과음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갖자"고 말했다.

특강에 이어서는 상추대금김치 등 실습이 진행됐다.

조동섭 기자

### 양양군노인복지관 수탁운영 양양 낙산사

양양 낙산사가 운영하는 낙산사복지재단이 양양군으로부터 양양군노인복지관을 수탁운영한다.

낙산사복지재단(이사장 정념, 낙산사 법주)은 8월 24일 오후 1시 양양군노인복지관(관장 무문, 낙산사 주지) 개관식을 개최한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에 소재하는 양양군노인복지관은 2009년 6월부터 사업비 36억9200만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7970㎡에 건축 연면적 168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낙산사복지재단 이사장 정념 스님은 "성공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비구니 이끌 인재 되길"

#### 전국비구니회, 장학회 설립... 첫 장학금 전달

전국비구니회가 인재 불사를 위해 비구니장학회를 설립하고 3명의 학인스님 및 연구자에게 첫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8월 19일 수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장학회 전달식을 개최했다. 비구니회의 첫 장학금은 범준 스님(고려대 한문학과 박사과정), 현서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이화미씨(콜럼버스 주립 커뮤니티 컬리지 인간자원경영 전공)씨에게 전달됐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장학금을 통해 불교발전에 이바지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고양돼 불교계에 크게 기여할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원스님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을 이사장으로 자민·명우·정덕·승혜·계호·성관 스님, 법련화·연화심 보살 등을 이사로 제한·탁연 스님을 감사로 구성했다.

장학기금은 명성 스님이 서화전을 통해 모은 5억원과 이사스님 등의 기부금 등 7억원이며, 매 학기 3명의 비구니·여성 연구자에게 500만원씩이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제환 스님은 "앞으로 장학수혜자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학인스님 등이 비구니·비구니회의 위상과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불미전 '목어이야기' 대상 수상

#### 9월 1~17일 불교중앙박물관 전시

불교미술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25번째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이번 제25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은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11점, 입선 22점 등 총 45점이 선정됐다. 25번째 불미전 대상은 공예부문 이지연의 '목어이야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어이야기'는 3개의 목어가 전생, 현생, 내생으로 표현돼 불교의 연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나무를 등에 짊어고 있는 목어는 전생에 업보가 많았던 상황을 표현한 것이며, 가운데 맨 위에 달린 목어는 현재를 나타낸다. 이은정 기자

마지막으로 어디론가 도약하려는 모습의 목어는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년 여에 걸쳐 완성된 '목어이야기'는 높이 18cm, 길이 50cm, 둘레 12cm로, 건칠(웃칠을 건조시킨 상태)과 삼베를 주재료로 사용했다.

이지연씨는 "사찰에 있는 목어를 보고 그 표현 형태가 자유롭다 생각해 목어를 소재로 삼았으며, 보통 사람들은 흔히 '질'이라는 것을 계산한 것 같아, 자개에만 사용되는 줄알고 있어 삼베라는 색다른 재료를 통해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이 묻어나오면서도 불교적 사고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불미전의 개막식은 9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은정 기자

###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툼과 삶의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중요하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 앞 동산불교대학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 2010년도 하반기 동산불교대학·대학원·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 안내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www.dongsanbud.net

#### 불교학과

##### 1.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교수
1년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당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2년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 2. 강의일시 및 모집인원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80명), 목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명), 통신반 (50명)

불교학과 2010년 8월 접수중

##### 3.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초발심자경론, 한문해석, 금강경(1,2), 유마경(1), 중국고전(정자) 등	심만준교수	9월 9일(매주-목) 오후 7시
불교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T-데이(불행,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서문화사 재대학(1,2) 한국의 현대	오양기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법,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9일(매주-목) 오전 10시 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불, 여불, 가을, 겨울)	정선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 2시

####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불교포교론	활안스님	9월 6일(매주-월) 오후 7시
불교학과 목요반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20명)	아함의 수행론	김형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 7시
	초기불교수종론(2)	최봉수교수	10월 7일(매주-목) 오후 4시
다도학과 (2년과정)	다정, 대관다론, 다부, 동다송, 다선전	김진숙교수	9월 14일(매주-화) 오후 4시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 (1년과정 20명)	각종 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9월 4일(매주-토) 오후 2시
법패의식반 (2년과정 20명)	법패 실기	인각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 3시

본회사부처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 732-1206 FAX : 732-1207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팸플릿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불교교육 전문대학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장 무진장 / 이사장 안동일